

농어촌공사 고흥, 미래 농업세대 청년농과의 간담회 개최

청년농의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등

뉴스일자: 2025년03월06일 14시46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박승수)는 3월 5일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 농지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지역 대표 청년농, 지자체 농지담당 공무원, 공사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는 공사는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 지원성과와 향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자체에서는 인구정책과 농업소득이 연계된 청년농 지원정책을 설명해 청년농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년농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적극 지지의사를 표하면서도 농업이 하나의 직업 직군으로 발돋움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승수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록해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년농·지자체·공사가 힘을 합하여 지역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참달기